

“술·육류 대신 차·과일 올려 조상의 업 소멸 기원”

설맞이 불교식 차례 지내는 방법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왔다. 설날이 되면 가족들이 모두 모여 조상을 기리는 차례를 지낸다. 하지만 대부분 유교적 관례에 따라 고기, 생선, 술 등을 올리는 차례상을 차리게 된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불자들에게 불교식 차례 지내기를 권유하고 있다.

유교식 차례상과 불교식 차례상의 가장 큰 차이는 술과 육류 대신 차와 과일, 과자를 올린다는 점이다. ‘차례(茶禮)’라는 것은 ‘차(茶)를 올리는 의례’를 말하는 것으로 원래는 오늘날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술을 올리지 않고 간소했다고 한다. 유교식 제례가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하는 목적이거나, 불교의 제례는 조상의 업이 소멸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겸손하고 절차로 간편한 불교식 차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육류, 생선 제외한 육법공양이 기본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이 2011년에 발간한 <불교 상제제 안내(재가신도를 위한 상례와 제례 지내는 법)>에 따르면, 상차림은 간소하게 준비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 계율에 따라 육류와 생선은 제외한다. 먼저 육법공양인 향, 초, 꽃, 차, 과일, 밥을 올리고, 기본 상차림으로 국과 3색 나물, 3색 과실을 갖춘다. 나무와 과실은 계절에 적합한 것을 올리고, 형편에 따라 떡·전·과자 등을 추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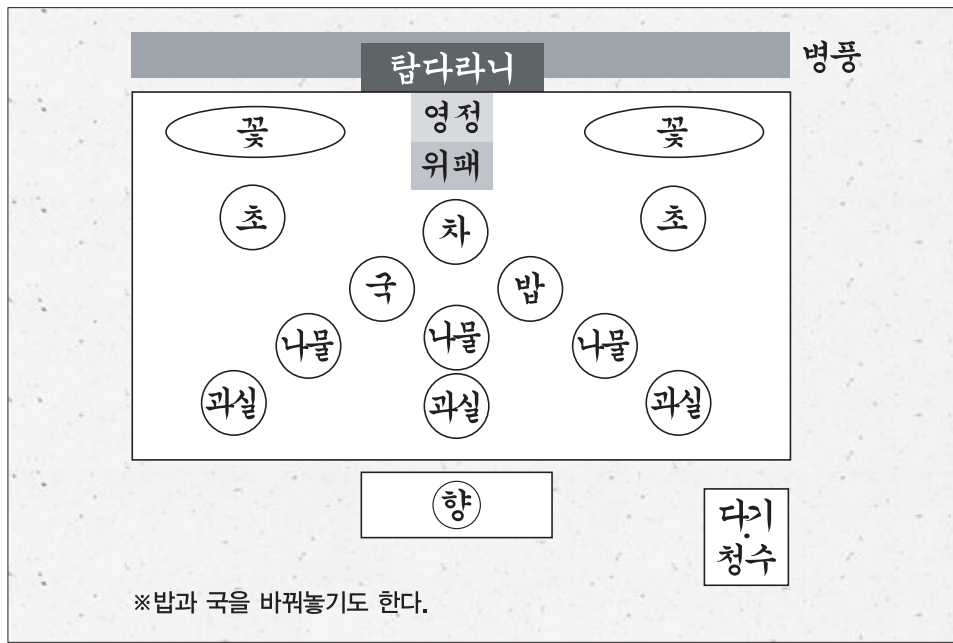
불교식 가정제사의 절차는 일반 제사방식을 근간으로 하되, 불교에서 행하는 시식(施食)의 의미를 수용한다. 의례 절차는 영가를 모시기, 제수 권하기, 불법 전하기, 축원 올리기, 영가에게 편지 보내기, 영가 보내기, 제수 나누기 등 7단계로 진행된다.

1~7단계로 진행, 조상의 업 소멸 기원

첫째 단계인 영가 모시기는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법 나무상주시방승’을 칭명하며 가피를 구하는 거불(擧佛)을 올린 뒤, 삼보의 위신력으로 영가를 청해 모시는 청혼(請魂) 단계에서는 참석자들이 모두 꿇어 앉은 뒤 ‘조상님이시여! 저희들이 모시는 영단에 왕림하시어 자리에 앉아 주시옵소서’라는 의식문을 염송하며 영가를 청하고 마지막에 합장반배 한다. 이어 모두 일어나 부처님과 영가를 향해 3배를 올린다.

2단계인 제수 권하기는 차와 음식을 올리는 ‘헌다’와 공양을 권하는 ‘헌식’으로 진행된다. 헌다에서는 차를 올리고 나뉜 번식진언(變食眞言) ‘나막 살바 다타야다 바로기제 움삼바라 삼바라 흠 을 3번 염송한다. 헌다를 마치면 다함께 앉아 영가에게 공양을 권하는 헌식소(獻食疏)를 다함께 염송한다. 헌식소를 염송한 후, 잠시 2~3분 정도 눈을 감고 조용히 공양 드실 시간을 드린다.

3단계 불법 전하기는 모두 합장하고 앉아 경전을 염송한다. 영가에게 전하는 경전은 고



※출처: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에서 발간한 <불교 상제제 안내(재가신도를 위한 상례와 제례 지내는 법)>

인인 평소 좋아했던 경전이나, <금강경> <아미타경> ‘법성경’ 등의 일부분을 정해 염송한다. 4단계 축원 올리는 영가의 극락왕생과 해탈을 기원하는 축원을 올리는 단계로써 모두 합장하고 앉은 상태에서 제주가 축원문을 염송하게 된다.

5단계 편지 올리는 가족 중 한 명이 영가에게 쓴 편지를 읽는 시간을 갖는다. 생략해도 무방하지만 조상에 대한 마음과 추억을 일깨워 주게 돼 자칫 형식적으로 흐르기 쉬운 차례를 보다 의미있는 시간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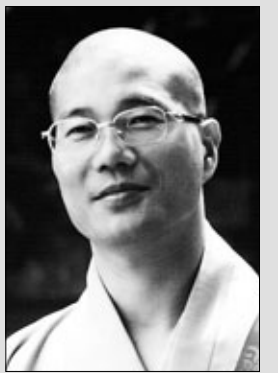
6단계 영가 보내기에서는 제주의 안내에

따라 모두 일어나서 3배로 봉송인사를 올린다. 3배 후 제주는 “조상님이시여! 부처님의 법력을 빌어 자리에 내려오셔서 법다운 공양 받고 법문 들으셨으니 이제 편안하게 잘 가십시오. 잘 가셨다가 다른 날 도량 세워 청하올 때 본래의 서원 잊지 말고 다시 오소서.(반배) 나무아미타불(10번).” 차례상의 음식을 거두고 제주는 밖으로 나가 나무아미타불 염불기도를 하면서 위패를 사른다. 7단계 제수 나누기에서는 가족이 둘러 앉아 음복을 하며 영가를 기리고 서로 덕담을 나누면 된다.

“예부터 조상들 차례에 茶 올려”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 ‘차례상에 차(茶) 쓰기’ 운동 전개

열린선원 선원장 법현 스님(사진)은 차례를 올릴 때 차를 쓰지 않고 술을 쓰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1990년대부터 ‘차례상에 차(茶) 쓰기’ 운동을 전개해왔다.



법현 스님에 의하면 차례(茶禮)는 흔히 다도(茶道)의 효시로 알려져 있는 ‘충담 스님의 미륵부처님께 차올리기’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전통종교와 사상이 불교와 유교가 모두 다 차례를 아주 중시해 오고 있다는 점은 여러 자료에서 확인된다.

특히 근래에 초의선사(草衣禪師)의 동다송(東茶頌)보다도 300여년 앞선 차시를 남겨 다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재공(寒齋公) 이목(李穆) 선생이 조상님께 지낸 제사 홀기(勿記)에서 “국을 내리고 차를 올렸다(徹羹奉茶)”는 내용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종교·사상의 차이에 관계없이 제사와 차례에 차를 썼음이 증명됐다.

법현 스님은 “‘집집마다 의식이

다르다[家禮]’는 이야기처럼 전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패 쓰는 것이나 상차림은 자유롭게 하고 집안인 종교의 전통을 따르되 조상님을 위하는 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열린선원은 1월 31일 오전 11시 ‘설맞이 합동차례 및 세알세배법회’를 봉행한다. 법현 스님은 핵가족화되고 가족관계가 단절해지면서 차례를 지내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불교차례의식으로 합동차례를 지낸다.

겨울추위 잊게 한 아이들의 부처님 노래

국제포교사회 제7회 어린이 영문자타카 암송대회 개최

국제포교사회(회장 권영구)는 1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제7회 어린이 영문자타카 암송대회(The 7th Jataka Story Telling Contest)’ 본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본선에서는 예선을 거친 22개팀 24명이 열띤 경합을 벌였다. 대상의 영예는 봉은사 구도은 학생(초5, 양천초)이 차지했다.

총 70개팀, 79명이 참여해 처음으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역에서 지역예선이 펼쳐졌다.

본선 심사를 맡은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참가 어린이들의 영어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각 사찰의 후원으로 예년보다 풍성한 행사로 치러지는 등 인상깊었다”고 평가했다.

노덕현 기자



제7회 어린이 영문자타카 암송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자타카를 암송하고 있다.

어·청지도사 선발고시

2월 22일 서울·부산서 시행
2월 5일까지 접수 마감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담당할 지도사 자격시험이 실시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은)은 2월 2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과 부산 대한불교교사대학 강의장 2곳에서 불교어린이지도사 및 불교청소년지도사 고시를 시행한다. 이번 시험은 불교상식 및 어린이·청소년포교일반에 대한 필기와 면접, 실기 순으로 치러진다.

특히 실기시험에서는 목탁음의와 함께 어린이지도사 지원자에 한해 동화구연, 찬불동요, 범회진행 중 한 가지를 택해 실력을 점검한다.

접수마감은 2월 5일 오후 6시까지며, 합격자는 반드시 오는 3월 22일 열리는 불교어린이·청소년지도사 연수에 참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2011-1903 이나은 기자

미혼모, 청소년 가정에 불교상담 지원

불교상담개발원·해피마중물

1월 16일 업무협약

한부모가정, 청소년 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불교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1월 16일 불교상담개발원 회의실에서 지난 해 불교사회적경제사업 콘테스트에서 동상을 수상한 해피마중물(대표 김현숙)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교상담개발원은 해피마중물이 지원하는 한부모가정(미혼모부), 청소년 가장,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상담과 자립지원에 동참할 계획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그간 불교계에는 미혼모, 청소년 가장 등을 비롯한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포교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업무협약을 통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도현 스님(가운데)과 해피마중물 여성 불자 5명(김진연, 김현숙, 신지영, 윤정자, 최원희)은 1월 16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해 불교상담개발원은 이들에 대한 심리 상담을 중심으로 불교의 사회참여에 기여하고, 새로운 상담영역을 개척하고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상담인력 양성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피마중물은 20년 이상 사찰 자원봉사를 해오던 여성 불자 5명이 모여 미혼모와 가장, 경력단절 여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해피마중물을 만든 5인은 2013년 10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산하 학습동아리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공부한 후, 불교적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자 뜻을 모았고 지난해 11월 26일 ‘불교사회적경제사업 콘테스트’에서 동상을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나은 기자



2014학년도 정규 4년제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동양학부 신입생 모집 동양학전공(명리풍수) 학생 모집

글로벌사이버대학교에 동양학부 동양학전공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명리학과 풍수학을 비롯한 동양의 예측학은 심오한 우주자연의 이치를 탐구하고, 인간의 선천성을 이해하여 자아실현과 삶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학문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어 빛나는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이를 한층 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하여 글로벌사이버대학교에 4년제 정규 대학과정 개설되었습니다.

교육과목	수월성교육
1학년: 명리학총론, 명리학실사, 명리명리학, 격국용신론, 선천적성상당이론, 풍수학총론, 풍수학실사, 육요학총론, 주역입문	동학교를 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시간이 날 때 동영상 강의 수강을 들으면 되기 때문에 공직자,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등 누구나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고 정규대학교 졸업장과 함께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학년: 명리공학론, 명리직업적성론, 선천적성상당실습, 형기풍수총론, 이기풍수총론, 현상풍수론, 부동산풍수론, 양택풍수론, 육요학총론, 기문토간총론, 교양학문	입학자격 및 안내
3학년: 명리육전총론, 명리재물운예측, 선천적성연구, 명리태법명리심리신설론, 직업학총론, 명리천수, 간혹풍수, 구정기학	학 력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기간 2014년 1월 11일(토) ~ 2014년 2월 16일(일) 원서접수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go.global.ac.kr 입학문의 1577-1786 동양학전공담당자 02-3014-5562
4학년: 명리상당실습, 명리내정법, 고급선천적성상당실기, 첩판신수연구, 현상명택실습, 점포풍수론, 관상학총론, 택일실습	·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양학전공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의 장학금 혜택

2014학년도 신입학생 총입장학금 수여
(입학년도 40% + 이후 2년간 30%)

사회복지학부 학생 모집

사회복지학과	041)529-2749
21세기 복지사회를 선도하는 사회복지전문인력 양성! 복지의 질적성숙에 기여할 사회복지전문가 양성! 지식과 현장능력을 갖춘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제공!	
취득자격증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평생교육사2급 건강가정사 복지상담사	

실버복지학과	041)529-2794
성공적인 노후를 선도하는 사회복지사 양성! 미래사회에 대처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복지전문가! 라이프코칭을 통한 진정한 휴먼서비스 실현!	
취득자격증 사회복지사2급 평생교육사2급 실버전문복지사 케어복지사 복지시설경영사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 과정

- (1) 초·중급과정
 -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음바라, 천수바라
 -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계
 - ◆ 49재, 천도 의식
- (2) 상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함
 - ◆ 사다라니바라, 회의재바라,
 - ◆ 신중작법(104위, 39위), 육건이
 - ◆ 다계나비춤작법, 운심계작법
 - ◆ 가지계

■ 강주스님 : 성 우

- ◆ 개강일시 : 2014년 3월 6일 목요일
- ◆ 교육시간 : 초·중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 연락처 :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총무원 (전화접수 가능)

한국불교태고종 대구총무원과 경북총무원이 통합하기에
2014년부터 한곳에서 수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한국 불교 태 고 종 경북 교 구 총 무 원